

粉青沙器

고흥
분청사기,
현대와
소통하다 展

분청사기
초대작가 기획전

The invited artists exhibition

기간 2018. 12. 26^{WED} -

2019. 02. 24^{SUN}

장소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

개막행사 2018.12.26^{WED} 15:00

김기현 김영설 김이섭 김치준 남태윤 라필주 명재현 변중욱
송일근 송정기 유명춘 유영대 정우식 정이석 최희숙



고흥분청문화박물관
Goheung Buncheong Culture Museum

고흥 분청사기, 현대와 소통하다 展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작가 15명을 모시고
분청사기 초대작가 기획전을 마련하였습니다.

15세기 화려한 도지문화를 꽃피웠던 고흥 운대리는
자유 분망함과 활달함, 그리고 파격적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던 곳입니다.

조선 도공의 개성이 가장 잘 반영된 분청사기의 예술성과 창의성은
현대 도예작가들에 의해 재현되고 해석되어 한국의 고유한 미감을 간직한
전통문화예술로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분청사기 현대작가 기획전을 통하여 분청사기의 예술성과
아름다움이 현대적으로 재탄생되고, 운대리 분청사기의 멋을
계승·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고흥군수 송귀근

개막행사

일시_ 2018년 12월 26일(수) 15:00

장소_ 분청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

※ 개막행사 참석여부를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